

오늘의 기사관

13일
▶제 48회 산학협동포럼=오전 7시 무등파크호텔 4층 다이아몬드룸, 양병무 한국인간개발연구원장이 '리더쉽과 혁신적 성공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
▶영산강 시원 가마골 보존과 이용계획 심포지엄=오후 2시 담양군 문화회관 소공연장. 이해섭 향토문화연구원회장이 '가마골의 역사, 보존가치', 김희우 호남대 조경학과 교수가 '가마골의 환경보전 방안', 안종수 호남대 관광학과 교수가 '가마골의 관광자원화 방안' 등에 대해 발표.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 권역별 세미나(광주대도시권)=오후 3시 김대중컨벤션센터. 박동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주제로, 송승광 동산대 교수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혁신과제', 김정희 부산 중구혁신협의

영산강 시원 가마골 보존과 이용계획 심포지엄

오후 2시 담양군 문화회관 소공연장

회 위원이 '대도시 기초혁신협의회 운영사례' 등에 대해 발표.
▶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 창립 41주년 기념식=오후 4시30분 메리엇트 예약장 컨벤션홀.
<14일>
▶독감백신 생산공장 기공식=오전 11시 화순군 화순읍 내평리 지방산업단지. 오는 2008년까지 2만평에 2개동(면적 5천평) 생산 공장 건설 예정.
▶비정규직 차별 실태와 개선 방안을 위한 토론회=오후 3시 광주그랜드호텔 11층. 명명명 광주비정규직센터 설립추진위원회 기획단장이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발표. 제조업·공공 서비스업·특수고용직·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실태보고 및 토론.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 권역별 세미나(동

부권)=오후 3시 여수시청. 이견철 혁신협 사무국장이 '동북아의 신산업거점 육성과 과제', 심재수 여수시 지역혁신협의회 지방자치분과 위원장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추진을 위한 혁신과제'에 대해 발표.
▶제 515회 장성 아카데미=오후 4시30분 장성군청 4층 대회의실. 석동연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대사가 '한·중 관계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
▶제 4회 호남권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오후 5시 광주시청 중회의실.
▶남도소리 상설무대=13일(수) 오후 7시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전인삼의 '춘향가' 공연.
▶정음성 국제음악제=13일(수) 오후 7시 5·18 기념문화센터. 수원시립교향악단·전주시립합창

단·소프라노 민수경·피아노 신민정씨 등 공연.
▶2006 담양사랑 히모니=13일(수) 오후 7시 담양군 문화회관 대공연장. 놀이패 신명 주관으로 모듬북·마당극·B-Boy 댄스·그룹사운드 공연.
▶청동회전=13일까지 무등예술관. 청동회 25번째 회원전. 유화, 한국화 작품전.
▶광주·전남 문화협회전=14일부터 20일까지 마트로 갤러리. 문인화 116점 전시.
▶아트그룹 엘레멘(L.M.N) 창립기념전=14일부터 20일까지 대동갤러리. 조산대 출신 젊은 작가들의 작품전.
▶제 9회 영·호남 미술교류전=13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송동회전=14일까지 광주 일곡도서관 갤러리. 동림미술연구원 회원들의 한국화 작품전.
▶박일정전=12월31일까지 고흥도화현미술관. 도판화(陶板畫·도자기로 만든 판에 그린 그림) 작품 전시.
▶중국 영남 현대미술 작품전=12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1층.

뉴스퀴즈

42. 천식을 앓던 '악골' 소년이 2006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수영의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이 선수는 이번 대회 자유형 200m, 4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한데 이어 지난 8일 열린 남자 자유형 1천 500m결선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 3관왕의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경영 3관왕은 1982년 뉴델리 대회 때 최윤희가 배영 100m, 200m, 개인혼영 200m에서 우승한 이후 무려 24년만에 달성된 것입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박태환 ②이원희 ③장성호 ④최준상

참여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처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쿠키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숨은그림찾기

< 51 >



▶지나주 정답
펜촉, 송사리, 대접, 뭇, 은행잎, 열대어, 갈매기, 종이배, 남자구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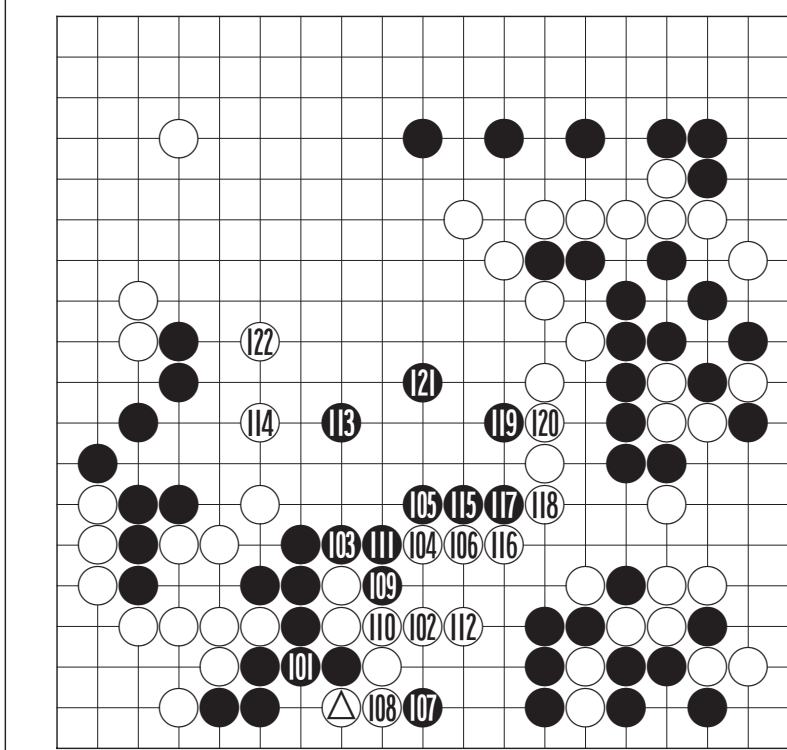


▶찾아보세(요) 다리미, 성냥개비, 열대어, 펜촉, 고추, 왕관, A자, 남자구두, 셔플

도둑의 비법

한 남자가 경찰서에 가서 어젯밤 자기 집을 털 도둑을 꼭 만나고 싶어했다.
"나중에 법정에서 만날 기회가 있을겁니다"라고 경관이 이야기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아니오, 그게 아니라 말이오"라고 말했다.
"난 단지 어떻게 우리 마누라를 깨우지 않고 집에 숨어 들어올 수 있었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몇 년째 시도하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들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강성군·광주시 북구 양산동
배미자·광주시 남구 주월동



양곤마의 위기 7보(101~122)
▶제15회 光日盃 광주·전남 지역바둑대회
▶백 정장호 5단 <포스코>
▶흑 이강민 5단 <PCA생명>

백 102로 물린 것이 빠이픈 곳으로 흑이 패의 대가를 흑득하게 치르고 있다. 이 수로서 흑의 근거가 없어져 버렸다.
백 102로 지키자 하변의 흑진이 상전벽해가 되고 이제 겨우 구구로 삶을 도모해야만 한다. 이 5단은 쓴맛을 다시며 103부터 살길을 찾고 있다.
흑 115로 마는 것이 선수가 되어 121까지 어느 정도 사는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정 5단이 급할 것 없다는 듯이 114로 뛰고 120까지 하자는 대로 다 받아준 다음 슬슬 122

로 갈라나가지 이번에는 왼쪽의 흑대마가 급해지고 있다.
흑으로서의 최대의 위기상황이다. 그러나 양곤마가 되어 쫓기고 있지만 흑의 위안은 아직은 짙이 많다. 양쪽의 대마를 무사히 수습하면 할말이 있다. 그러나 피해를 입지 않고 양곤마를 수습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위기에 물린 이 5단이 과연 이 난국을 무사히 수습해낼 수 있을지가 궁금한 장면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조한승 9단이 12월 한국기원 특별대국실에서 열린 제1기 박카스배 천원전 결승 4국에서 이세돌 9단을 235수 끝에 흑 불계로 꺾고 종합전적 3승1패로 천원전 타이틀을 획득했다.
조 9단은 초반 우하귀에서 이세돌 9단의 실착을 틈타 40여 집을 벌어들인 뒤 여세를 몰아 승부를 손쉽게 마무리했다.
조 9단이 본격 기전에서 우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요타텐소배, 몰가정보배, GS칼텍스배 등 5개의 타이틀을 독식했던 이세돌 9단의 다관왕행진은 일단 멈췄다. 우승상금은 2천만원(준우승 1천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3일(음 10월 23일 丙子)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y.

굿모닝 잉글리쉬 <796>

How late were you? 얼마나 늦었나요?
A: Did you pick up Maggie from practice?
B: Well, not exactly. I was running late. And she had already left with Jane.
A: How late were you?
B: Twenty minutes. But Jane's mother said she would bring her home later. They are working on their homework.
A: 연습 후, 당신은 Maggie를 데려왔습니까?
B: 음, 아니었어요. 조금 늦었어요. 그 애는 이미 Jane과 함께 떠났습니다.
A: 얼마나 늦었나요?
B: 이십분입니다. 그런데 Jane 엄마께서 나중에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시던데요. 그 애들은 지금 숙제를 하고 있어요.
pick up : (아무물) 차로 마중 나감
run late : 늦다
How bad was it?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가?
- How early were you? 당신은 얼마나 빨랐는가?
- How disappointed were you? 당신은 얼마나 실망했는가?

오하이오 니혼고 <796>

お腹(なか)が空(す)いているのよ
배가 고픈 거야
A: バスの中や地下鉄(ちかてつ)の中で、お菓子(かし)かなんかを食べてる人がけっこういるよ。
B: お腹(なか)が空(す)いているのよ、きっと。
A: でも、お菓子(かし)なんかのくずがこぼれて汚(きた)なないじゃないか。公的(こうてき)な場所(ばしょ)なんだから、慎(つつし)んでほしいよ。
B: まあね、ほかの国(くに)では、車(くるま)内に飲食(おんじき)禁止(きんし)のマークがあるところが多いけどね。
A: 버스 안이나 지하철 안에서 과자 같은 걸 먹는 사람이 꽤 있어.
B: 배가 고픈 거야. 틀림없어.
A: 하지만, 과자 따위의 부스러기가 떨어져서 더럽잖아? 공적인 장소니까 조심했으면 좋겠어.
B: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차내에 음식금지 마크가 있는 곳이 많은데...
お腹(なか)が空(す)く : 배가 고프다
くず : 쓰레기
こぼれる : 넘쳐 흐르다

니하오 쑹구위 <514>

象乎
(어떤 기술에 아주) 뛰어나다, 자신 있다
A: 兩位想點什麼?
B: 檢我制介結構物這个寶儀象象事...
A: 好端, 這雞菜象, 雞蛋, 雞麵, 紅燒牛肉, 雞不費...
B: 那深一今德3命...
A: 那...
B: 那...
A: 那...
B: 那...

한자 이야기 <414>

七縱七擒 (칠종칠금)
일곱 칠, 풀어줄 종, 일곱 칠, 사로잡을 금
칠종칠금(七縱七擒)은 적을 일곱 번 풀어 주었다가 일곱 번 사로잡는 것으로 도량(度量)이 넓고 관대함을 비유한다.
촉(蜀)의 유비를 섬겼던 제갈량(諸葛亮)은 건흥(建興) 3년(225) 봄에 군대를 이끌고 남방(南方)에 가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다. 거기서 오랑캐도 한족(漢族)도 모두 무서워한다는 맹획(孟獲)이 있다는 것을 알고 현상금을 내걸고 생포(生捕)하게 하였다.
맹획이 불잡혀 오자 제갈량은 맹획에게 자신의 진영(陣營)을 보여주고 "우리 군대는 어떠한가?"하고 물었다. 맹획은 "진에는 실태를 알지 못하여 패배하고 말았지만, 이번에는 진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정도라면 다음에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고 하였다. 그러자 제갈량은 웃으면서 그를 풀어주고 또 한번 맞붙어 싸웠다. 결국 일곱 번을 풀어주고 일곱 번을 다시 사로잡았다. 제갈량이 다시 맹획을 풀어주려고 하자, 맹획이 달아나지 않고 말하길, "당신은 신(神)과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들은 다시는 대항하지 않겠습니다."하였다. 제갈량은 그길로 사천성의 전지(前地)에 이르러 남방을 모두 평정하였다고 한다.